

형용사 II

유현경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이 글은 새국어생활 제13권 2호(여름호)에 실렸던 ‘형용사’에 이어지는 글로서, 지면관계상 지난 글에서 제외하였던 한국어 형용사의 조어적 구성과 계량언어학적 측면에 대하여 기술하려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난 글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의 정의와 품사 범주로서의 형용사의 면모를 살펴보았으며 그 형태, 통사,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개괄적인 기술을 하였다. 이 글은 다른 언어나 한국어의 다른 어휘 부류와 비교하여 한국어 형용사가 가지는 어휘적 특성과 형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것이다.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형용사의 조어적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 형용사도 다른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며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갈라진다. 한국어 형용사는 단일어 구성보다는 다른 어기에서 파생되거나 합성된 복합어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기초적이고 빈도가 높은 어휘들은 단일이어면서 고유어인 경우가 많지만 저빈도 어휘로 갈수록 명사나 명사성 어근에 파생접사가 붙어 파생어를 이루거나 어근들이 둘 이상이 모여 합성어가 된 어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론

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의 다양한 파생어 유형과 아울러,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온 합성어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게 된다. 한국어 형용사의 조어적 구성에서는 다른 어기에서 형용사로 파생되거나 합성된 어휘뿐 아니라 형용사가 어기가 되어 다른 품사로 파생되거나 합성되는 경우도 다룰 것이다. 본론의 뒷부분에서는 한국어 형용사가 어휘부에서 차지하는 통계적 위치를 계량언어학적으로 조망하게 된다.

2. 한국어 형용사의 조어적 구성

한국어 형용사는 그 조어적 구성에 있어서 다른 품사들과 차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형용사의 어휘 내적 구성을 살펴보면 어근에 다양한 파생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형용사가 많은데, 특히 ‘-답-, -롭-, -스럽-, -하-, -되-, -지-, -차-’ 등의 형용사 형성 파생 접미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근이나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생산성이나 수적인 면에서 파생어 형용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한국어 형용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합성어들도 존재한다. 아울러 형용사가 어기가 되어 다른 품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함께 기술하게 될 것이다.

2.1. 형용사 파생어

접사는 어근과 결합되는 자리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된다.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은 없고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접두사의 경우보다 훨씬 그 수도 많고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접두사에 의한 형용사 파생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2.1.1. 접두사에 의한 형용사 파생

형용사 파생의 접두사는 주로 고유어 계열의 형용사에 붙어 그 의미를 강조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ㄱ. 곁- : 곁싸다, 곁차다
- ㄴ. 드- :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
- ㄷ. 알- : 알밋다, 알긋다
- ㄹ. 새- : 새까맣다, 새빨갳다, 새하얗다, 새파랗다, 새카맣다, 새뽀얗다
- ㅁ. 셋- : 셋노랗다, 셋말갳다
- ㅂ. 시- : 시꺼멓다, 시뻘겋다, 시뿌엷다, 시커멓다, 시퍼렇다, 시허엷다
- ㅅ. 싯- : 싯누렇다, 싯털겋다
- ㅇ. 새되다, 외지다, 솟지다, 매지다, 막다르다

(1)ㄱ의 ‘곁-’은 ‘어근의 상태나 정도가 매우 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하고 힘찬 느낌의 형용사 어근과 결합을 하며,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는 아니다. (1)ㄴ의 ‘드-’는 주로 크기나 높이, 세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 붙어 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ㄷ의 ‘알-’은 몇 개의 형용사 어근 앞에서 그 의미를 한정한다. (1)ㄹ~(1)ㅅ의 접두사 ‘새-, 셋-, 시-, 싯-’은 어근이 지시하는 색채의 농도가 짙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접두사는 통시적으로 형용사 어근에 ‘-앙-’이 붙어 형성된 색채형용사와 결합한다. (1)ㅇ은 접두사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소에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 파생어이다.

2.1.2. 접미사에 의한 형용사

형용사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그 종류도 많고 이에 결합되는 어

근도 다양한데, 다음에서는 파생 접미사별로 형용사 파생어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① -답-

접미사 ‘-답-’은 명사에 결합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어근에도 결합할 수 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의 (2)와 같다.

(2) ㄱ. 꽃답다, 정답다, 참답다

ㄴ. 사람답다, 여자답다, 남자답다, 사나이답다, 사내답다, 인간답다...

(3) 아름답다, 아리팍다(←아릿답다), 실답다

(2)는 접미사 ‘-답-’이 명사에 결합된 경우이며, (3)은 자립형식이 아닌 불완전 어근에 결합한 예이다. (2)ㄱ과 (2)ㄴ은 둘 다 명사를 여기로 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통의 파생 접사가 그 지배 범위가 단어 내부에 국한되는 데 비해 ‘-답-’과 같은 접사는 그 지배 범위가 단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서 명사뿐 아니라 명사구에도 붙는 경우가 있다.

(4) ㄱ. 어머니께서는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답게 의연하게 행동하셨다.

ㄴ. 선생님의 집은 학자의 집답게 조출하면서도 품위가 넘쳤다.

ㄷ. 현정화는 한때 세계 탁구 챔피언답게 재빠른 몸놀림을 보여주었다.

접미사 ‘-답-’은 예 (4)의 밑줄친 부분에서 보듯이 단어가 아니라 구 단위에 붙을 수 있다. (4)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파생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답-’의 특수한 성격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와 연관해서 (2)ㄱ과 ㄴ의 차이를 살펴보면 (2)ㄱ은

어근 앞에 수식하는 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파생 접사의 전형적인 예이고, (2)ㄴ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근 앞에 수식하는 구를 동반할 수 있어 예문 (4)에서의 ‘-답-’이 가지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파생 접미사 ‘-답-’은 대략 ‘어근의 성질, 그 특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면 ‘(‘NP₁이 NP₂답다’에서) ① NP₁ ∈ NP₂의 함의 ② NP₁ ∈ NP₂이기 위한 기준과 조건을 NP₁이 만족시킨다는 판단주체의 주관적 긍정적 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스럽-, -롭-

접미사 ‘-스럽-’은 명사나 불완전 어근에 붙어서 형용사를 형성하는데, 형용사 파생 접미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 중 하나이다. ‘-스럽-’은 결합되는 어근의 특징적 속성에 매우 가깝게 근접했음을 나타낸다. 어근에 접미사 ‘-스럽-’이 붙어서 형용사가 형성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5) ㄱ. 어른스럽다, 바보스럽다, 짐스럽다, 촌스럽다, 줌스럽다...
- ㄴ. 고집스럽다. 고민스럽다,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 염려스럽다, 공포스럽다, 복스럽다, 위험스럽다, 다행스럽다, 근심스럽다, 행복스럽다, 사랑스럽다, 걱정스럽다, 만족스럽다, 용맹스럽다, 능청스럽다, 수선스럽다, 방정스럽다. 유난스럽다, 평화스럽다, 자연스럽다, 혼란스럽다, 변덕스럽다, 수다스럽다, 간사스럽다...
- (6) ㄱ. 갑작스럽다, 거추장스럽다, 거북스럽다, 새삼스럽다, 상스럽다, 시원스럽다, 앙큼스럽다, 우악스럽다, 통명스럽다, 이물스럽다, 쓸쓸스럽다, 투박스럽다, 쑥스럽다, 뻔뻔스럽다...
- ㄴ. 우스꽝스럽다, 밋살스럽다, 거북살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예뻐장스럽다, 먹음직스럽다...

(5)는 ‘-스럽-’이 명사와 결합한 예이고 (6)은 접미사 ‘-스럽-’이 자립성이 없는 불완전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로 파생된 경우이다. (5)ㄱ은 구체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것이고 (5)ㄴ은 추상명사를 어근으로 한 것들이다. (6)에서 ㄱ은 단일 형태의 어근들과 결합한 ‘-스럽-’의 예이고 ㄴ은 복합 형태의 어근들과 결합한 것이다.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중에서 ‘-스럽-’은 생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파생된 형용사의 수도 많고 공시적으로도 활발한 조어력을 가지고 있는 접미사이다.

‘-스럽-’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롭-’을 들 수 있는데, ‘-롭-’의 의미는 ‘어근의 속성이 풍부하게 있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럽-’이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라면 ‘-롭-’은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의 평가이다.

- (7) ㄱ. 자비롭다, 자유롭다, 권태롭다, 신비롭다, 명예롭다, 예사롭다, 영화롭다, 의롭다, 이롭다, 지혜롭다, 평화롭다, 향기롭다, 해롭다, 가소롭다, 위태롭다, 은혜롭다, 호화롭다...
- ㄴ. 보배롭다, 수고롭다, 대수롭다, 슬기롭다...
- ㄷ. 새롭다

- (8) 번거롭다, 따사롭다, 까다롭다, 날카롭다, 애처롭다, 괴롭다, 대수롭다...

(7)은 명사와 결합한 예이고 (8)은 불완전 어근과 결합한 것들을 보인 것이다. (7)ㄱ은 어근이 한자어 계열이고 (7)ㄴ은 고유어 계열이다. (7)ㄷ은 관형사로 쓰이는 ‘새’에 ‘-롭-’이 붙은 형태라 특이한 구성이지만 통시적으로 볼 때 ‘새’가 명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어법의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7), (8)에서 ‘-롭-’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하고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보스럽다, 공포스럽다, 수다스럽다’ 등 몇 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과 주로 결합하는 ‘-스럽-’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다.

③ -하-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 중에서 ‘-하-’는 논자에 따라 자립성이 있는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로 보고 자립성이 없는 어근과 결합할 때만 파생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자립성이 있는 명사와 결합할 때도 불완전 어근과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고 ‘-하-’의 의미가 다른 접사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적 의미가 없이 투명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이러한 ‘-하-’를 파생 접미사로 보기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다, 사랑하다’ 등의 동사 파생에 관여하는 ‘-하-’도 파생 접미사로 본다. 다음은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 ‘-하-’가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의 예이다.

- (9) ㄱ. 가득하다, 그만하다...
 - ㄴ. 술하다, 창피하다, 암전하다...
 - ㄷ. 성실하다, 진실하다, 불안하다, 고독하다, 위험하다, 건강하다, 순수하다...

- (10) ㄱ. 께쌘하다, 께끗하다, 떼떼하다, 든든하다, 갑갑하다, 말끔하다, 거북하다, 개운하다...
 - ㄴ. 가혹하다, 간단하다, 무관하다, 소홀하다, 완고하다, 의아하다, 참담하다, 철저하다, 친근하다...

- (11) ㄱ. 푸르데데하다, 푸르멩멩하다, 푸르스름하다, 불그스레하다, 푸르죽죽하다, 누르스름하다, 가무스름하다...
 - ㄴ. 듻직하다, 바람직하다, 먹음직하다, 봄직하다...
 - ㄷ. 동그스름하다, 가느스름하다, 큼직하다, 짙막하다, 나지막하다, 나직하다, 야트막하다, 자그마하다, 넓적하다, 높직하다...
 - ㄹ. 달착지근하다, 달콤하다, 새콤하다, 시큼하다...
 - ㅁ. 우뚝투들하다, 이리저리하다, 오목조목하다, 우락부락하다, 얼

룩덜룩하다, 울긋불긋하다, 알쏭달쏭하다...

ㄷ. 시원섭섭하다, 시시껄렁하다, 시금털털하다...

(12) 험스럽다, 타이트하다, 섹시하다, 스마트하다...

(9)는 자립성이 있는 부사나 명사에 ‘-하-’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것들이고 (10)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하-’가 결합된 예들이다. (9)ㄱ은 부사에 ‘-하-’가 붙어 형용사가 된 예이고 ㄴ은 고유어 계열의 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형용사이다. (9)ㄷ에서 어근으로 쓰인 한자어 명사들은 상태성의 의미를 가진 부류로 접사 ‘-하-’가 붙어 형용사가 되었는데, 동작성의 의미를 가진 ‘공부, 건설, 침략...’ 등의 명사에 ‘-하-’가 결합되면 동사로 파생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형용사의 의미적·동사적 특성은 전적으로 결합되는 명사의 자질에 달려 있으며 ‘-하-’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러한 부류의 명사들이 용언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어미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서 접미사 ‘-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데 매우 생산적이어서 다수의 용언 형성에 관여한다. (10)에서 ㄱ은 고유어 계열의 단일어 어근에 결합된 경우이고 ㄴ은 한자어 계열의 비자립적인 어근에 ‘-하-’가 결합된 것들이다.

(11)ㄱ은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특수한 단어 형성 요소들이 붙은 다음에 접미사 ‘-하-’가 결합되었고 ㄴ은 동사에 ‘-음직-’이 붙은 다음 ‘-하-’가 결합된 예이다. (11)ㄷ에서는 공간적 크기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에 여러 가지 단어 형성 요소들이 붙고 그 다음에 ‘-하-’가 연결되어 형용사 파생이 되었다. (11)ㄹ은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여러 가지 형태소가 결합되고 접미사 ‘-하-’가 붙은 것들이다. 한국어 형용사에는 (11)ㄱ처럼 자음만을 교체한 두 형태소를 나열한 다음 접미사 ‘-하-’를 결합하여 독특한 말맛을 담아내는 어휘들이 많이 있다. 한국어 어휘의 풍부한 표현력은 이러한 부류의 형용사와 상징어 계열의 부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ㅂ은 두 개의 상이한 형태소를 어근으로 하고 이에 다시 접미사 ‘-하-’

가 붙은 유형으로 이 또한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데 주로 쓰인다.

외래어가 한국어 어휘부에 편입될 때 그 어휘가 동사나 형용사 범주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형태 그대로는 용언으로 쓰일 수 없다. ‘-하-’나 ‘-되-’와 같은 접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미와 결합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용언의 기능을 하게 된다. (12)는 ‘헨섬, 타이트, 섹시, 스마트’와 같이 형용사의 속성을 가진 어휘들이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외래어+하다’ 구성의 형용사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접사 ‘-하-’가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의 어근은 한자어 어근이 고유어 어근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이며 비자립적 형식이 자립 형식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한자어 중에서는 명사라 할지라도 자립적인 쓰임보다는 ‘-하-’와 결합된 어근의 형태로 쓰이는 고빈도 어휘들이 많이 존재한다.

④ -되-, -나-, -지-, -차-

‘-되-, -나-, -지-, -차-’ 네 접미사는 동사에서 전용되어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로 쓰이는 것들이다. 원래의 의미는 동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몇몇 어근들과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에 관여한다.

(12) ㄱ. 고되다, 그릇되다, 성숙되다, 참되다, 헛되다, 호되다...

ㄴ. 값지다, 건방지다, 기름지다, 다부지다, 멋지다, 야무지다, 후미지다...

ㄷ. 별나다, 엄청나다, 유별나다...

ㄹ. 벽차다, 보람차다, 세차다, 알차다, 우렁차다, 줄기차다...

(12)ㄱ에서의 ‘-되-’는 동사 형성에서도 접사로 쓰인다. 동사 파생에서는 접미사 ‘-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하-’와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형용사 파생의 경우는 동사와 달리 ‘-하-’처럼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였다. (12)의 형용사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합성어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제시하게 되는 합성어와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

기 때문에 파생어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비슷한 합성어의 경우는 대부분 ‘명사+용언’의 꼴인데 명사와 용언 사이에 조사가 결합될 수 있으며 구 구성에서 온 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러한 합성 형용사와 달리 (12)는 어근과 접사를 분리할 수 없으며 뒤에 오는 ‘-되-, -나-, -지-, -차-’에 어휘적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파생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재미나다’와 ‘별나다’를 비교해 보면 ‘재미가 나다’는 가능하지만 ‘별이 나다’는 불가능하며 ‘별나다’의 ‘나다’에는 어휘적 의미가 별로 없다.

⑤ 기타

위에서 열거한 형용사 파생 접미사 외에도 ‘-얹(엮)-, -얹(엮)-, -브-, -갑-, -쩍-, -다랑-’ 등의 파생 접미사들이 있다.

(13) -얹(엮)-

- ㄱ. 반갑다, 즐겁다, 미덥다, 아깝다, 부끄럽다, 두렵다, 무겁다, 무섭다, 마렵다
- ㄴ. 구덥다, 서럽다
- ㄷ. 간지럽다, 근지럽다, 어지럽다, 시끄럽다, 부드럽다, 징그럽다, 미끄럽다, 보드럽다, 매끄럽다
- ㄹ. 더럽다, 버겁다, 부럽다, 깔끄럽다, 귀엽다, 너그럽다, 노엽다, 어렵다

(14) -얹(엮)-

- ㄱ. 노랗다, 까맣다, 꺼멓다, 누렇다, 하얗다, 뽀얗다, 피랗다, 빨갳다, 뿌옇다, 퍼렇다.....
- ㄴ. 동그랗다, 둥그렇다, 말갳다, 멀겁다, 싸느랗다, 썩느렇다...

(15) -갑-

- ㄱ. 달갑다, 차갑다

ㄴ. 살갑다, 험겁다

(16) -브-

ㄱ. 믿쁘다, 아프다, 곱쁘다

ㄴ. 슬쁘다, 기쁘다, 나쁘다, 바쁘다, 서글쁘다, 어설쁘다, 어여쁘다, 예쁘다...

(17) -찍-

ㄱ. 멧찍다, 의심찍다, 객찍다...

ㄴ. 수상찍다, 미심찍다, 미안찍다, 겸연찍다...

(18) -다랗(따랗)-

ㄱ. 기다랗다, 짙다랗다, 굵다랗다, 가느다랗다, 널따랗다, 좁다랗다...

ㄴ. 굵다랗다, 높다랗다, 깊다랗다, 커다랗다...

위의 예 중에서 (17)의 ‘-찍-’과 (18)의 ‘-다랗-’을 제외한 나머지 접사인 ‘-압(엷)-, -얹(엷)-, -브-, -갑-’은 공식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이제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지도 않기 때문에 접미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고유어 계열이고 형태적·의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용사의 전체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생각되어 이 글에서는 기타 부류로 제시하였다. 위의 예 (13)~(18)은 접미사가 결합되는 어근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하여 묶은 것이다.

2.2. 형용사 합성어

이 절에서는 어근의 종류에 따라 형용사 합성어를 나누어 기술해 나가기로 하겠다.

2.2.1.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형용사 어간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두 어간이 연결어미의 매개 없이 바로 결합하여 새로운 어간을 만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 길-둥글다, 희-맑다, 울-바르다, 질-푸르다, 검-붉다

이러한 구성은 공식적으로 생산력이 없어 그 어휘 수가 많지 않다.

2.2.2. 명사+용언 어간

이 구성은 명사에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결합된 것으로 형용사 합성어 중에서 가장 수적으로 많다. 이러한 구성은 대부분 명사 다음에 오는 조사가 생략되어 생긴 것들이다.

(20) 맛-나다, 풀-죽다, 힘-들다, 힘-차다, 눈-부시다, 힘-겹다, 낮-익다...

(21) ㄱ. 맛-있다, 싹수-있다, 재미-있다, 힘-있다, 쓸모-있다, 규모-있다, 균형-있다...

ㄴ. 맛-없다, 멋-없다, 버릇-없다, 상관-없다, 속-없다, 까닭-없다, 인정-없다, 일-없다, 여지-없다, 염치-없다. 대중-없다, 한-없다, 면목-없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관계-없다, 형편-없다, 끝-없다...

ㄷ. 꼴-사납다, 모양-사납다, 심술-사납다, 심사-사납다...

ㄹ. 힘-세다, 텃-세다, 억지-세다, 아귀-세다...

ㄹ. 값-싸다, 값-비싸다

ㅅ. 배-다르다, 색-다르다, 남다르다...

- . 낙살-좋다, 비위-좋다...
- ㅈ. 찰떡-같다, 소태-같다, 집채-같다, 거지-같다...
- ㅊ. 심술-긋다, 흥-겹다, 손-맵다, 입-바르다, 눈-높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밤-늦다...

(20)은 명사와 동사의 어간이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 ‘힘들다, 맛나다’ 등은 ‘힘든다, 맛난다’와 같이 동사의 활용으로도 쓰여 동사와 형용사의 중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다. (21)은 명사에 형용사 어간이 결합되어 형용사 합성어를 이룬 예이다. 명사에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형용사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로서 구로 쓰이다가 그 빈도가 높아지면서 조사가 생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새로운 어휘가 첨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의 합성어 부류이다.

2.2.3. 용언 어간+어미+용언 어간

이 부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주로 연결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형용사 어간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용사 어간이 형성된 것들이다. 동사 합성어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합성어가 무척 많은데 형용사 합성어는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중간에 매개하는 어미의 형태가 매우 특이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합성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2) ㄱ. 깎아지르다, 낚아빠지다
 ㄴ. 게을러빠지다, 약아빠지다, 늪어빠지다

- (23) ㄱ. 가늘디가늘다, 쓰디쓰다, 달디달다, 희디희다, 붉디붉다, 가깝디가깝다, 검디검다, 곱디곱다, 깊디깊다, 짜디짜다, 차디차다, 크디크다, 푸르디푸르다, 맵디맵다...
 ㄴ. 머나멀다, 크나크다, 기나길다...
 ㄷ. 멀고멀다, 길고길다, 하고많다...

(24) 거침없다

(22)ㄱ은 동사의 어간에 연결어미 ‘-아/어’가 붙고 그 다음에 동사 어간이 결합되어 형용사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22)ㄴ의 경우 형용사 어간에 연결어미 ‘-아/어’가 붙고 동사 어간이 결합된 것들이다. (23)은 형용사 어간에 연결어미가 오고 다시 형용사 어간이 붙은 것인데 형용사 합성어에 관여하는 ‘-디, -나, -고’ 등의 연결어미의 형태가 무척 특이하다. (24)는 동사 ‘거치-’에 명사형 어미 ‘-ㄴ’이 붙고 다시 형용사 ‘없-’이 결합되어 형용사 합성어가 되었다.

2.2.4. 부사+용언 어간

다음은 부사에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용사 합성어의 예들이다.

(24) 잘-나다, 못-나다, 막-되다, 털-되다, 못-생기다, 잘-생기다, 더-하다, 못-하다, 덜-하다...

(25) 가만-있다, 다시-없다...

(24)에서 ‘나- 되- 하-’ 등은 2.1.2에서 파생 접미사로도 다루었으나, 이러한 형태소들이 파생 접미사로 쓰이는 것은 명사나 불완전 어근에 붙을 때이다. 부사에 결합된 ‘나-, 되-, 하-’는 명사에 결합된 경우와 달리 그 어휘적 의미가 뚜렷하여 접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25)는 부사에 형용사 ‘있- 없-’이 결합되어 형용사 합성어를 이룬 경우이다.

2.2.5. 기타

- (26) ㄱ. 온데간데없다
 ㄴ. 시원찮다, 가당찮다, 편찮다...
 ㄷ. 그만이다

(26)ㄱ은 구 구성이 합성어로 변화한 경우이고, (26)ㄴ은 구가 줄어들어 형용사 합성어를 이룬 예이다. (26)ㄷ은 부사 ‘그만’에 소위 서술격 조사 혹은 지정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를 합성어로 보아야 할지 파생으로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다. 본고의 입장대로 ‘이다’를 형용사로 본다면 합성어로 보아 2.2.4에 넣어야 하지만 사전에 따라 독립된 표제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만’의 의미항목으로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 분류하였다.

2.3. 다른 품사로의 파생과 합성

한국어의 형용사는 다른 어기들로부터 파생되거나 합성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어근이 되어 다른 품사로 파생되거나 합성된다. 형용사는 명사, 동사, 부사 등 주요 어휘 품사 범주로 파생 및 합성되며, 문법화 과정을 통하여 조사, 어미 등의 문법 형태소의 형성에 관여하기도 한다.¹⁾

2.3.1. 명사로의 파생과 합성

형용사는 여러 가지 파생접미사와 결합하여 명사로 파생된다.

1) ‘이다’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본다면 형용사가 문법 형태소의 많은 부분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자칫 논의의 초점이 문법화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형용사의 문법화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 글에서는 형용사가 어휘 범주의 파생과 합성에 관여하는 경우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 (27) ㄱ. 크기, 밝기, 굵기, 굳기, 세기, 기울기, 빠르기...
 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높낮이...
 ㄷ. 더위, 추위
 ㄹ. 두께, 무게
 ㄴ. 기쁨, 슬픔, 미움, 즐거움, 괴로움, 두려움, 반가움, 아픔, 서러움,
 외로움...
 비. 검둥이, 흰둥이
 ㅅ. 작다리, 늙다리
 ㅇ. 늘그막, 잔챙이, 약보

(27)에서 보듯 형용사는 대표적인 명사화 접미사인 ‘-기, -이, -ㄱ/음’ 등의 다양한 접미사와 결합하여 명사로 파생된다. ‘-기’나 ‘-이’는 주로 사물의 공간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성상형용사와 결합하는 반면, ‘-ㄱ/음’은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형용사와 결합한다. (27)ㄷ의 ‘더위’는 통시적으로 ‘덥- + -의 > 덥뵈 > 더뵈 > 더위’의 과정을 거친 것인데, 이는 공시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은 형용사가 어근의 형태로 명사 합성어 형성에 관여하는 예이다.

- (28) ㄱ. 작은달,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큰소리, 큰집, 큰일, 검은자위, 흰자위, 굵은비, 흰머리, 누린내, 단내, 맑은기침, 작은창자, 잔병, 잔뼈, 어린아이, 갓은양념, 단맛, 선소리, 진흙, 늙은이, 젊은이, 더운물, 쉰말, 탄생각, 싹값...
 나. 곱돌, 늦봄, 늦서리, 늦잠, 검버섯, 옥니, 잔주름...

(28)ㄱ은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고 그 다음에 명사 어근이 결합된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구 구성과 동일하여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28)나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로 관형사형 어미의 관여 없이 형용사

어간이 그대로 명사 어근과 결합한 형태이다. (28)ㄱ과 같은 통사적 합성 명사가 ㄴ의 비통사적 합성 명사보다 훨씬 많다.

2.3.2. 동사로의 파생과 합성

(29) 등글리다, 없애다, 비우다, 높다, 기울이다, 눅이다, 키우다, 테우다, 낮추다, 늦추다, 넓히다, 좁히다, 밝히다, 붉히다, 더럽히다, 그르치다...

형용사를 어근으로 하여 동사가 파생되는 경우는 위의 (29)에서 보듯이 ‘-리-, -애-, -우-, -이-, -추-, -히-, -치-’ 등의 사동의 접미사가 붙어서 사동사를 형성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0) ㄱ. 좋아하다, 싫어하다, 기뻐하다, 미워하다, 두려워하다...
 ㄴ. 싫어지다, 높아지다, 빨개지다, 없어지다, 가벼워지다, 달라지다...

(31) 알잡다, 낮보다, 설익다, 무르녹다, 잔다듬다, 늦되다...

(30)은 통사적 합성어의 예인데, 형용사가 어기가 되어 동사 합성에 관여하는 경우는 (30)ㄱ처럼 심리형용사에 ‘-어하다’가 붙은 경우와 (30)ㄴ처럼 형용사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된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31)은 비통사적 합성 동사의 경우인데 대부분 형용사 어간에 동사 어간이 결합된 것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2.3.3. 부사로의 파생과 합성

한국어의 형용사는 많은 수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다. 접미사 ‘-이’ 이외에도 몇 개의 접미사가 형용사를 어근으로 하여 부사 파생에 관여한다.

- (32) ㄱ. 곧이, 같이, 굳이, 높이, 멀리, 빨리, 길이, 가까이, 구슬피, 어여
뻐, 슬피, 재빨리, 배불리...
ㄴ. 조용히, 나란히, 영원히, 소홀히, 무사히...
ㄷ. 바로, 자주, 고루, 바투, 매우...
ㄹ. 그릇, 쉽사리, 어렵사리, 실컷

(32)ㄱ은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 부사이고 (32)ㄴ은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형용사를 이루는 어근에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한국어 형용사에 ‘-하다’ 계열의 형용사의 수가 많고 이들 중 (32)ㄴ처럼 부사 파생을 하는 어휘들이 적지 않아 일단 파생에 넣어 해당 예를 보였다. (32)ㄷ은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오/우’가 붙은 것들이고 (32)ㄹ은 ‘-사, -사리, -컷’ 등의 접미사가 관여하는 경우인데 그 수가 매우 적고 이러한 파생 유형은 이미 공식적으로는 생산력을 잃은 듯하다.

형용사를 어근으로 하는 합성 부사의 경우 통사적 합성어의 예는 없고 비통사적 합성어만이 존재하는데 그 수가 매우 적다.

(33) 작작, 비뿔비뿔, 둥글둥글

형용사가 합성 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예는 (33)의 경우처럼 어간이 아무런 매개 없이 중첩되어 이루는 예들만 발견된다.

3. 한국어 형용사의 계량언어학적 분석

앞부분에서 한국어 형용사의 어휘 내적 구성에 관하여 조어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하나의 독립된 품사 범주로서 다른 어휘들과 변별되는 고유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조어적 과정을

통하여 여타의 어휘 범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형용사가 어휘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량언어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어휘가 그 어휘가 사용되는 언어의 어휘부에서의 빈도수와, 다른 어휘에 비해서 그 어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 등의 문제는 조사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의 규모 및 조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어휘의 계량언어학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한국어 어휘부에서 차지하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그 양적인 비중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글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한국어 형용사가 어휘부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에 관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빈도 7 이상의 어휘들 가운데에서 형용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제시해 보고, 그 다음에 기초어휘에서 형용사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²⁾

기존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용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라고 한다. 이 중에서 동사가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가 형용사의 비율이다. 한국어 전체의 어휘에서 형용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5% 내외인데, 이는 한국어에서 빈도 7 이상의 어휘가 약 65000 개라고 할 때 이 중 2600여 개 내지 3250여 개가 형용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어휘부에서 형용사는 명사와 동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품사이다.

형용사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는 소위 지정사 혹은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이다’이다. ‘이다’를 형용사에서 제외할 경우 ‘있다, 없다, 아니다,

2) 어휘의 계량적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여러 논의 중 주요 연구 몇 개에 한정하여, 어휘부에서의 형용사의 양적인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전체 어휘에서 형용사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는 대부분 <서상규(1998), “말뭉치 분석에 기반을 둔 낱말 빈도의 조사와 그 응용”, 한글 242>에서 인용하였다. 기초어휘의 목록 및 분포도 해석 등의 문제는 기초어휘의 개념 정의와 선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기초어휘의 목록과 분포는 <임지룡(1991), “국어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 교육 연구 23>에서 인용한 것이다.

같다’ 등의 어휘가 고빈도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한국어 형용사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초어휘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의미가 있다. 전체 어휘에서 약 5% 내외의 비중을 가진 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문장의 필수적 요소인 서술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로 볼 때는 가장 어휘수가 많은 명사에 뒤지지 않는다. 언어생활에서 빈도수가 높고 분포가 넓으며 파생이나 합성 등 이차조어의 근간이 되는 필수어를 기초어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어휘 목록 1500여 개 가운데 형용사의 비율은 약 10%에 달한다. 이는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인 수치이다. 이는 한국어 형용사가 한국어 어휘부에서 갖는 중요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맺음말

지난 호에 실린 글 ‘형용사’에 이어 이 글에서는 형용사가 어휘 형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글은 어느 한 부분을 깊이 있게 기술하거나 문제점을 드러내는 성격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고 평이한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부분 중에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젯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파생으로도 합성으로도 볼 수 있는 ‘하다, 되다, 치다, 나다, 지다’ 등에 대한 설명이나 ‘-디, -고, -나’ 등의 형용사 합성에 관여하는 어미들의 처리 문제 등은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어 형용사는 전체 어휘에서나 기초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 한국어 형용사는 고유어의 비중이 높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한국어다운’ 어휘 범주로 알려져 왔다. 이는 한국어 형용사가 한국어의 특질을 잘 반영하는 어휘 범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력과 아름다운 어휘 구사는 묘사와 상징이 풍부한 형용사에 의한 것이다. 형용사의 조어적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형용사의 특질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형용사 중에서 많은 수의 어휘가 파생과 합성의 절차에 의해서 형성된다. 특히 다양한 접미사의 발달로 형용사는 신조어들이 생산되는 비율이 높은 개방적인 어휘 범주이다. 어휘 범주 중에서 형용사는 명사, 동사와 함께 한국어의 가장 핵심적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양적인 측면에서도 명사, 동사에 이은 세 번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